

# “광주 혁신학교·희망교실사업 제자리 걸음”

### 혁신교육사업 핵심 불구 직선 3기 들어 증가폭 줄어 “투명성 강화·내실화 핑계로 확대보다 안정만 택해”

#### 광주시의회, 시교육청 시정질문

광주시교육감의 직선 1, 2기 핵심 혁신교육사업이었던 혁신학교와 희망교실사업이 직선 3기 들어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순애(더불어민주당, 서구2, 광천·동천·상무1·유덕·치평) 광주시의원은 22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의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에서 “장학국 교육감의 핵심 혁신교육사업들이 직선 3기에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빛고을혁신학교는 장 교육감의 직선 1기 핵심공약 사업으로,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학교 실현을 위한 공교육 성공모델 창출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2011년 시작했다. 2020년 현재 유치원 3개원, 초등학교 37개교, 중학교 19개교, 고등학교 4개교, 특수학교 3개교가 혁신학교와 예비혁신학교로 지정돼 운영중이다. 장 교육감 직선 1기와 2기에 중점적으로 육성했던 혁신학교는 직선 3기에는 고작 4개 학교만 확대했다.

광주시교육청의 또 다른 핵심 혁신교육의 하나인 희망교실도 마찬가지로 상황이다. 희망교실은 담임교사가 교육소외학생, 학교생활부적응 학생, 멘토가 필요한 일반학생 등 불리한 교육여건의 학생들에 대한 멘토가 돼주는 자발적 참여 프로젝트다. 2013년 1607교실로 시작, 2018년까지 총 3만2729교실이 운영됐으며 교사 3만2802명과 학생 20만2671명이 참여했다. 광주희망교실은 학생들의 학교적응을

돕는 현장 교사의 희망기부 활동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현장중심 교육복지 성공 사례로 인정받아 서울·대전·세종·부산교육청 등에서 도입해 운영하는 등 전국 교육복지 우수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장 교육감의 직선 3기 공약사업에는 매년 7000개의 희망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최근

변경된 공약사업에는 2020년 5500교실, 2021년 5000교실로 점차 그 수를 줄여나가고 있다.

정 의원은 “혁신학교와 희망교실은 광주혁신교육의 가장 큰 핵심 사업이었지만 이제는 시교육청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며 “투명성 강화와 내실화를 핑계로 확대보다는 안정만을 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시교육청은 혁신학교의 성과를 일반학교로 확산시키겠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다”며 “광주시 전 초등학교의 혁신학교화와 모든 교사가

이 희망교실에 참여 할 때까지 시교육청은 멈춰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성과를 일반학교로 확산하기 위해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수업, 생활교육, 교직원문화, 업무혁신을 중심으로 한 학교문화혁신을 교육청의 역점과제로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며 “학교차지 모델학교 사업 등을 통해 일반 학교의 우수사례를 발굴, 혁신교육이 학교 현장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22일 광주시의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AI 집적단지’ 광주 첨단 3지구 ‘에코-스마트시티’ 개발 용역 착수

인공지능(AI) 집적단지 등 광주형 뉴딜을 이끌 광주 연구개발 특구 첨단 3지구 ‘에코-스마트(Eco-Smart) 시티’ 구상이 본격화했다.

광주 도시공사는 “최근 ‘첨단 3지구 에코 스마트 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하고 연구 절차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첨단 3지구를 에너지 자립형 산업단지, 스마트 시티로 구현하기 위한 도시 기술·서비스 모델을 정립하는 과정이다.

용역에서는 국내·외 스마트 시티 추진 동향 분석과 지향점, 스마트 시티 기반시설 구축, 관리·운영 방안 등도 모색한다. 에코 스마트 시티는 도시에 정보통신기술(ICT)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해 주거, 환경, 교통 등 문제를 해결하고 태양광과 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도시를 지향한다.

첨단 3지구는 광주 북구 오룡동·대촌동·월출동, 광산구 비아동, 전남 장성군 남면·진월면 일원 361만6800여㎡ 규모로 AI 집적단지, 국립심혈관센터 등 광주·전남 핵심 연구·산업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첨단 3지구 개발사업은 1조2000여억원을 투자해 2025년까지 진행된다. 지난 6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특구 개발계획 승인 절차를 마쳤고 올해 연말 실시계획 승인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양식산업발전법 전남 수산업 발전 기회로 활용을”

### 해양바이오 물질 확대·특화산업 육성 등 광전연 박은옥·김동주 연구위원 주장

지난 8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에 맞춰 전남 양식 어장 환경관리 강화와 양식어업 규모화 등 전남 양식어업의 새로운 모델 육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연구원 박은옥 연구위원·김동주 선임연구위원은 ‘광주전남정책브리프’를 통해 ‘양식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른 전남 양식산업 발전의 선제적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박 연구위원 등에 따르면 전남 수산업은 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기후변화, 연근해 수산자원 남획 등에 따른 어업자원량 감소, FTA 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로 인해 한계에 직면한 상태다. 지난 8월 시행된 ‘양식산업발전법’은 양식어업관련 기존 법체계가 갖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어업인의 양식장 환경 개선의 자발적 참여 유도과 기업형 양식산업 육성을 담고 있다.

또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도 도입, 양식업권의 임대차 허용 범위 확대로 기존 양식업자의 권리 보호와 양식장의 효율적 이용으로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식산업발전법’에는 양식업의 진입제한을 완화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대기업의 양식업 진출 시 기존 영세어업인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전남의 경우 가족 종사자수 비율이 1854명(33.6%)로 전국대비 가장 높기 때문에, 특히 영세한 양식어가의 품목의 경우에 대기업 진출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

광주전남연구원 박은옥 연구위원·김동주 선임연구위원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른 전남의 지속 가능한 양식산업의 새로운 모델과 방향성 제시를 위해 ▲어촌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생산 지원 구조로의 전환, ▲생산시설 및 지역 확대, 시설 및 방법의 표준화, ▲전남도 차원의 특화된 ‘양식산업발전계획’ 수립·시행 필요, ▲해양바이오 소재 물질 등으로 확대 ▲기업형 양식 유형별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전남 특화형 양식산업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양식어업인 등의 현장의견과 현장 수요를 적극 수렴해 실용화 중심의 양식산업 육성과 지원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영세 양식업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심도 있는 검토와 더불어 이에 대응한 전남형 양식산업의 모델 개발·육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e-모빌리티 기업’ 온라인 투자유치 성료

전남도는 22일 e-모빌리티 기업을 대상으로 온택트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5일 바이오펀드 설명회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될 이번 투자설명회는 지자체 최초로 현장(온라인 스튜디오)과 화상회의 앱 줌(Zoom), 유튜브 등 소통형으로 연결해 진행됐다.

이를 통해 관련기업 및 협회,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실시간으로 참여해 오프라인 설명회 이상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특히 수도권 소재 기업들이 다수 참여했으며, 질의에 대한 전문가들의 신속한 답변으로 전남 e-모빌리티 산업의 이해를 돕고 투자정보를 제공한 기회의 자리가 됐다는 평을 받았다.

실제로 유튜브 방송에 참여한 한 기업 관계자는

“이번 투자설명회를 통해 지자체와 전문가의 설명을 직접 들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질의답변이 이뤄져 매우 좋았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전남도는 전국 유일할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역이 소재해있으며, 영광군 대마산단 일원에 e-모빌리티 플랫폼을 구축해 연간 산업을 집적화하고, 제품 공공구매 확대 등을 통해 투자기업 경쟁력을 극대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모두 4차례 예정인 전남도 온택트 투자유치설명회는 오는 11월 5·24일에도 각각 이차전지와 지식정보산업을 주제로 계획돼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시, 중국문화주간 행사 24~30일 온라인 개최

광주시는 “제6회 중국문화주간 행사를 24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차이나센터가 주관하며 광주광역시 중국총영사관이 후원한다. ‘보고 싶은 친구’를 주제로 중국 언어문화 경진대회, 중국문화 체험, 비대면(랜선) 특강, 사진 공모전 등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행사는 광주시차이나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한다. 첫날인 24일 온라인 선포식을 시작으로 한중노래 경연대회 본선이 열린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선포식에는 이용성 광주시장 환영사와 개막선포,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과 장정강 주광주 중국총영사의 축사 영상, 광주전남 중국유학생회 등의 축하 공연이 진행된다. 26일에는 장정강 총영사의 비대면(랜선) 특강이 예정됐다.

27일에는 중국어 말하기 대회와 중국 전통공예인 매듭과 향 주머니 체험, 28일에는 요리 체험, 30일에는 중국총영사관 수석 요리사가 직접 출연해 선보이는 요리 영상을 만나볼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대리만 큼  
도움만 큼

‘아픈 마음  
행복 기쁨’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

우리가 보낸 따뜻한 시선이  
학교 폭력 없는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 갑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117

광주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